

로또복권과 교육



농업정책연구소장

이 언 목

‘인생역전’을 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이 무려 3조 5654억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월사금을 내고 인생역전에 성공한 사람은 겨우 몇 십 명이다. 50억 원 이상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전부 55명이고, 그 중에서 100억 원 이상 받은 사람은 8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훨씬 어렵다는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지출했던 말인가! 그래도 사람들은 복권을 살 것이다. 복권뿐만 아니라 경마도 하고, 경정도 하고, 경륜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복권 사고, 경마, 경정, 경륜 하는 사람들이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다. 아마도 고달픈 현실을 한 번에 벗어나고 싶은 심정에서 그러는 것일 거라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필자도 몇 번 주택복권을 사본적이 있다. 맨 정신에는 사기가 속스러워 소주 한 잔 먹고 얼큰하게 취해서 지하도를 지나다가, 혹시 나에게도 특별한 행운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한 대어섯장씩 복권을 사본 적이 있다. 하지만 1000원짜리도 당첨된 기억이 별로 없다. 그때의 씩씩하고 멧쩍은 기분이 싫어서 이후로는 거의 복권을 사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로또복권을 사본 적이 없다. 아마도 필자는 복권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긴 아무 할 일이 없다면 복권 몇 장을 사두고는, 1등에 당첨되면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는 것은 옛날 얘기를 듣는 것 보다 재미가 있을

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재미로 해야지 인생역전을 생각하고 복권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하긴 농협이 어떤 직원은 예치금 30~40억원으로 주식을 하다가 다 날리고,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2,000만원을 로또복권에 ‘투자’하여 몇 십만원에 당첨된 사건도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인생역전의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인생역전을 가져다 준 것은 부동산일 것이다. 필자가 아는 어떤 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아파트 두 채를 사서 팔았다고 한다. 그리고 새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좀 짠 사람이었는데 한층 여유가 있어 보였고, 필자에게 점심도 샀다. 가장 역사가 오랜 인생역전의 방법은 과거시험에 급제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야말로 비칠비칠하던 서생이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면 이보다 더 극적인 인생역전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춘향전을 보면서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여 변사또를 혼내고 춘향을 구하는 대목에서 얼마나 짜릿한 기쁨을 느꼈던가! 과거제도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어져 사법고시다 행정고시다 해서 동네에 현수막이 붙고, 낙방한 사람은 몇 년씩이나 절에서 고시원에서 청춘을 보내기도 한다. 점지만 잘 받으면 시장·군수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는 우리 정치풍토는 그야말로 인생역전의 대표적인 사례인지도 모른다.

몇 년간의 고생 끝에 이룬 과거급제나 고시합격은 좀 다르지만 '원샷'에 인생역전을 이룬 사람은 대개 불행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복권에 서 대박을 터트린 사람은 예외 없이 불행해 졌다는 것이다. 가족간 불화는 가장 흔한 것이고, 이혼에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마도 모든 행운이 대박 그 한편에 다 쓰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인생역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유태인과 한국인은 굶더라도 아이들 공부를 시킨다고 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초청을 받는 우수 고등 학생에 한국출신이 안 끼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격 폭등도 좋은 학원이 많아서라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알아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 교육에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댄되면서 어른들의 자기 교육에는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경기도연합회의 세미나에서 진흥원의 어느 과장이 한 말이 생각난다. "배의 당도가 11브릭스에 못 미치면서 '배 농사를 한 20년 지었는데 배울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중국의 인건비는 우리나라의 1/10밖에 안 된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농민들의 기술수준을 따라올 수 없을까? 머지않아 그들과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농업인구는 거의 9억 명에 달하고, 그들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곤궁하다. 그들은 농산물을 수출하여 잘살아 보겠다고 농민은 물론 관리들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중국 청도의 농업기술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지금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상당 부분 지원 받고 있지만 수 년 이내에 자체 기술로 생산한 종자와 종묘를 팔아서 연구소 운영비를 조달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하고 있다. 지금은 올라도 몇 년 내에 우리 농산물이

그들의 농산물보다 우위에 있는 점이 무엇일까?

누구든 남보다 앞서 가려면 공부하는 것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는가? 공부하는 효과는 금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 쌓이면 쌓일수록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농업이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농업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농업기술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쌓아온 것인데다 지금도 많은 인력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삼성이 반도체산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현대가 자동차산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많은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은 삼성과 현대가 산업의 특징도 모르는 무모한 짓이라고들 했다. 이 두 산업은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표산업이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면 어느 순간에 길이 보이는 게 인생사라고 할 수 있다. 인생역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른들의 경우에도 교육이다. 물론 농업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분야 교육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자세이다. 필자가 한 번 보고 잊지 못하는 격언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바보에게서도 배우지만, 바보는 현명한 사람에게서도 배우지 못 한다"고 한 말이다. 뜻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정부나 대학에서 마련하는 농민교육 과정은 좀더 재미있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설사 교육비가 공짜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내어 교육장까지 가고 오는 것이 다 비용이다. 누구나 비용보다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야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교육이나 세미나를 주최하는 사람의 안면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는 교육이나 세미나는 낭비일 뿐이다. 지금 농업정책연구소는 어떻게 해야 우리 회원들과 품목별 기술 및 경영전문가, 그리고 유통전문가들이 해당 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역전'을 이루는 길은 바로 이길 뿐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한농인**